

# 중국 스마트폰 추격에도 '삼성·애플' 양강 견재

## ICT 2017 결산

2017년 우리나라와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의 컴백', '애플의 역습', 'LG의 고전', '화웨이의 약진'으로 요약된다.

작년 가을 '갤럭시노트7 발화사건'으로 추축했던 삼성전자는 올봄 갤럭시S8과 가을 갤럭시노트8을 내놓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애플은 하반기 3차원 얼굴인식 '페이스ID' 기능을 갖춘 아이폰 발매 10주년 모델 '아이폰 X'로 마니아층의 열광적 호평을 받으며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에 LG전자는 봄에 G6, 가을에 V30을 차례로 내놓으며 분전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글로벌 스마트폰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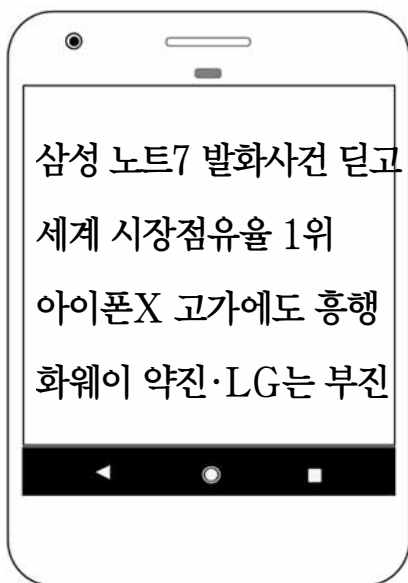
뛰어난 가격과 경쟁력으로 국내에서도 입지를 넓힌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선전도 눈에 띈다.

◇삼성의 화려한 컴백...갤노트8 발화사건 충격 이겨냈다=작년 가을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을 계기로 제품을 단종하고 리콜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전세계 언론 매체들을 초청한 가운데 원인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사태를 매듭지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에 들어간 배터리에서 결함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배터리 안전 검사를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를 실행했다.

예년보다 한 달여 늦은 3월말에 별도 행사에서 공개된 갤럭시S8은 4월말에 발매되자마자 흥행 돌풍을 일으키며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했다.

갤럭시S8의 출시 전 국내 예약주문 대수는 11일만에 갤럭시노트7의 2.5배인 100만대에 이르렀다. 한 달도 채 걸리지



삼성 노트7 발화사건 딛고 세계 시장점유율 1위 아이폰X 고가에도 흥행 화웨이 약진·LG는 부진

않아 전 세계에서 500만대가 판매됐고, 첫 3개월간 판매량은 전작인 갤럭시S7보다 15% 많았고, 출하량은 2000만대를 넘겼다.

9월에 출시된 갤럭시노트8도 국내 예약 판매량이 85만대에 이르렀고 11월 초에는 발매 48일만에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에 5년만에 처음으로 애플에 뒤졌던 분기별 글로벌 시장점유율(스마트폰)에 반격했다. 삼성은 올해 4분기 기준에 비해 1분기부터 다시 역전해 최근까지 1위를 지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의 전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3억1980만대, 점유율은 20.5%로 전망된다.

◇아이폰 X 등장...고가논란 일으켜=2014년 아이폰 6 이래 디자인에 큰 변화를 주지 않던 애플은 올해 아이폰X(텐)으로 '디자인 혁신'을 시도했다.

애플은 매년 가을 대화면과 소화면 등 두 종류의 신제품 아이폰을 내놓던 최근

수년간의 전례와 달리, 올해 9월 신제품 발표 행사에서는 아이폰 8, 8플러스, X 등 세 종류의 제품을 발표했다.

이 중 화면 크기가 각각 4.7인치, 5.5인치인 아이폰 8과 8플러스는 1년 전에 나온 아이폰 7과 7플러스를 약간 업그레이드한 후속 제품이었지만, 아이폰X은 애플이 아이폰 발매 10주년을 기념해 완전히 새롭게 내놓은 제품이었다.

아이폰X에는 2013년 아이폰5s부터 2017년 아이폰8까지 포함된 지문인식시스템 '터치ID'가 빠지고, 그 대신 3차원 스캔을 활용한 얼굴인식시스템 '페이스ID'가 들어갔다. 적외선을 쏘아 약 3만개의 점을 표시하고 아이폰 전면부의 700만화소 '스마트덱스 카메라'를 통해 이를 읽어 들어 분석하는 방식이다. 또 아이폰 시리즈 최초로 액정화면(LCD)이 아니라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화면이 탑재됐다.

가격도 64GB 모델이 999 달러, 256GB 모델이 1149달러로 기존의 최고가 아이폰보다 약 200달러 비쌌다. 한국에서는 세금을 포함한 이통사 출고가가 자그마치 136만700원, 155만7600원이었다.

아이폰X은 '보통 모델'인 아이폰 8과 8플러스보다 1개월여 늦은 11월 초에 판매가 개시됐다. 다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12월 초까지는 부품 수급 등 문제로 초기 물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

정확한 판매량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근 미국 투자은행 코일앤드컴퍼니의 애널리스트 칼 애커먼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아이폰 모든 기종의 판매량 합계는 7900만대로, 작년 같은 기간의 7800만대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애플이 실적발표 당시 가이던스로 밝힌 올해 4분기 아이폰 매출액 전망치는 840억~870억 달러로, 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SA 전망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아이폰 출하 대수는 2억1810만대,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위인 14.0%로 전망된다.

◇수령에 빠진 LG전자 스마트폰과 약진하는 화웨이=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은 2015년 2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적자를 냈다. 올해도 봄에 G6, 가을에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냈고 제품의 성능에 대한 호평도 나왔으나 시장 점유율 회복은 하지 못하고 있다. SA 추산에 따르면 LG전자는 2015년 이후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3%대에 머무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순위는 7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전자는 이미 애플과 삼성의 확고한 양강 체제가 형성된 프리미엄 시장에서 히트작을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중저가폰 부문에서는 중국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부진이 장기화되는 추세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브랜드는 막대한 규모의 중국 내수 시장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입지를 날로 넓혀 가고 있다.

화웨이의 올해 스마트폰 출하 대수 전망치는 1억5600만대로 세계 3위였고, 그 다음인 오폴(1억2190만대), 샤오미(9570만대), 비보(9270만대)의 기세도 무섭다.

특히 중국 브랜드 중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5년에는 7%대에 불과했으나 작년에는 9.3%로 늘었고, 올해는 10.0%일 것으로 전망된다.

화웨이는 한국 시장에서도 8월 '비와이패드 2'(KT용), 11월 '미디어패드'(LG유플러스용) 등 태블릿을 내놓고 올해 12월에는 KT를 통해 '비와이폰 2'를 출시하면서 중저가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다.

## '고화질 셀카' 갤럭시 A8 내년 1월 출시

삼성전자가 '영 프리미엄 스마트폰' (플래그십의 바로 아래인 준(準)플래그십 제품)인 2018년형 갤럭시 A8과 A8+를 내년 1월 초에 한국 등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기로 했다.

올해 플래그십 모델 갤럭시S8이나 갤럭시노트8과 마찬가지로 베젤을 최소화해 몰입감을 극대화한 '인피니티 디스플레이' 디자인의 제품이다. 화면 비율은 18.5대 9, 화면 크기는 각각 5.6인치, 6.0인치다.

갤럭시 스마트폰 중 최초로 전면 듀얼 카메라를 채택해 언제 어디서나 고화질의 셀피를 찍을 수 있다. 피사체는 또렷하게 보여 주되 배경은 부드럽고 흐릿하게 처리하는 보케(Bokeh) 효과를 사용자가 직접 보면서 조절할 수 있는 '라이브 포커스(Live Focus)' 기능도 제공한다. 촬영 후에도 배경 흐림 정도를 후보정할 수 있다.

2018년형 갤럭시A8과 A8+는 갤럭시 A 시리즈 최초로 가상현실(VR)기기 '기어 VR'을 지원하며, IP68 등급의 방수·방진 성능을 갖췄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 '삼성 페이', 데이터·이미지를 백업할 수 있는 '삼성 클라우드', 화면을 켜지 않아도 시간과 날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Always on Display)'도 쓸 수 있다.

이 제품들은 블랙, 오키드 그레이, 골드, 블루 등 4가지 색상으로 내년 1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순차적으로 출시된다. 출시되는 모델과



2018년형 갤럭시 A8

색상은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례로 볼 때 50만원대 후반이나 60만원대 초반이 유력하다.

삼성전자는 '갤럭시A8'이라는 이름의 스마트폰을 2015년에 처음 내놓았으며, 이듬해에는 '갤럭시 A8 2016 에디션'을 출시했다.

갤럭시 A8+가 출시되면 삼성전자가 플래그십인 갤럭시 S 시리즈가 아닌 A 시리즈나 J 시리즈 등에 '+'라는 이름을 쓴 첫 사례가 된다.

올해까지 삼성전자 A 시리즈 스마트폰의 모델명은 크기 등에 따라 A3, A5, A7, A8, A9 등 이름을 붙이고 뒤에 발매 연도를 달아 세대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으나, 앞으로 이런 방식이 유지될지는 확실치 않다.

## 내년 개기월식 2차례...연말 비르타넨 혜성·유성우 온다

(1월31일·7월28일)

내년에는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개기월식을 두 번 관측할 수 있으며, 비르타넨 혜성이 태양을 통과하는 현상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천문연구원은 지난 15일 2018년도 주요 천문현상을 발표했다.

내년 개기월식은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다.

1월31일은 식의 시작부터 전체 과정을 관측할 수 있다. 오후 8시 48분 1초 달의 일부분이 지구에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시작된다.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은 오후 9시 51분 4초에 시작돼 10시 29분 9초에 최대로 들어간다.

개기월식은 오후 11시 8분 3초까지 지속



비르타넨 혜성(46P/Wirtanen) 모습

한다. 부분월식은 자정 넘어 2월 1일 0시 11분 6초까지 진행해 1시 10분 끝난다.

7월28일은 새벽 3시 24분 2초에 부분월식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개기월식은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해 새벽 5시 21분 7초에 최대가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월몰 시각인 5시 37분까지 관측할 수 있다.

개기월식이 일어날 때는 검붉은 달을 볼 수 있다. 이는 지구 대기를 통과한 태양빛이 굴절되며 달에 도달하는데, 지구 대기를 지나면서 산란이 일어나 붉은빛이 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12월13일에는 비르타넨 혜성(46P/Wirtanen)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인 근일점을 통과한다. 비르타넨 혜성은 1948년 미국 천문학자 칼 에이 비르타넨(Carl A. Wirtanen)이 발견한 5.4년의

단주기 혜성이다. 근일점 시점에는 맨눈으로도 관측 가능하다. 같은 달 18일에는 플레이아데스와 히아데스성단 사이에서 관측할 수 있다.

천문 관계자는 "내년 12월 밤에는 유성우도 볼 수 있다"며 "보통 쌍둥이자리 유성우는 12월4일부터 17일 사이에 발생하는데, 내년 쌍둥이자리 유성우의 극대기인 12월14일 밤 11시 30분 이후에는 달도 지고 없어 유성을 볼 수 있는 좋은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상적인 조건에서 1시간에 120개 정도의 유성을 관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과학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

국립광주과학관이 지난 15일 2017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부패방지시책 평가 계획을 발표하고, 반부패·청렴 생태계 조성, 부패위험 제거·개선,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 등 총 10개 지표를 평가했다. 올해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2016년 26개 평가기관에서 8개 기관이 추가된 총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기관 고유의 반부패 추진시책 목표 수립과 고위직 및 연구원의 적극적인 참여, 청렴 교육 및 청렴 문화 확산 등 평가지표 전반에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상위 우수기관에

등극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소통-참여-실천하는 청렴 기관 조성'을 비전으로 연간 4대 전략 및 17대 추진과제를 선정·이행했다. 또 지난 4월 임직원 청렴대담회를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청렴유적지 탐방 및 직원 청렴 교육, 청렴 3중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전자적 측면에서 청렴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우수기관 중 85점 이상을 받은 국립광주과학관은 장관 표창과 내년도 시책평가 면제받게 된다. 또한, 미흡 기관에 대한 멘토역을 수행하며 부패방지시책 관련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전문의기자 ej6621@kwangju.co.kr

<h3>평택시 토지분양 (오픈)</h3> <p>삼성전자 - 120만평      LG전자 - 110만평 (미군기지 이전) (평택 항)</p> <p>■ 총 7필지 1필지(200평) x 평당 130만 ■ 건축 허가완료 토목,도로공사 완료</p> <p>■ 투자 최적합 - 미래 값어치 평당 300만 (기타 평택 투자물건)</p> <p>①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1,413평) 매가 7억 ② 평택시 고덕면 해창리 (253평) 매가 6억 ③ 평택시 서정동 (59평) 매가 9억 (건축허가 완료) ④ 평택시 지산동 (1,350만) 매가 27억5천만 ⑤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공장부지) (1,380평) 매가 8억2천 (서해안고속도로 5분)</p> <p>010-6670-9800      010-7384-7800</p>	<h3>영광주택 매매</h3> <p>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완료</p> <p>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직거래 010-6670-9800</p>	<h3>법률 경매</h3> <p>(주대신경매)</p> <p>1) 광산구 우산동 (원룸빌딩) 토지 123평 건물 198평 방 14개 (월세700만 예상)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5억6천</p> <p>2) 북구 우산동 (3층 상가주택) 토지 66평 건물 172평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p> <p>3) 북구 양산동 (공장) 토지 1,105평 건물 1,200평 월세 2천500만 예상 감정가 40억 → 최저가 17억5천</p> <p>4) 강진군 칠량면 (공장, 창고) 토지 1,600평 건물 673평 감정가 11억 → 최저가 3억6천</p> <p>5) 나주 경현동 (상가주택) 토지 600평 건물 411평 금성산 산책로 길 감정가 17억7천 → 최저가 6억3천</p> <p>6)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지 132평 건물 334평 사우나 운영시 월수익 2천이상 예상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p> <p>7) 동구 불로동 (8층상가빌딩) 토지 619평 건물 2116평 구시청 사거리 1분 (히딩크호텔) 감정가 88억 → 최저가 62억</p> <p>8) 남구 노대동 (주택) 토지 74평 건물 31평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1억4천</p> <p>9) 화순 도곡 (숙박시설) 토지 617평 건물 856평 도곡스파랜드 1분 감정가 26억5천 → 최저가 9억5천</p> <p>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토지 62평 건물 (전용) 99평 감정가 6억5천 → 최저가 2억9천</p> <p>11) 장성 북일면 (요양병원) 토지 33,659평 건물 1,505평 감정가 32억 → 최저가 18억</p> <p>12) 북구신안동 (모텔) 토지 141평 건물 656평 광주역 2분 코너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p> <h3>경매교육</h3> <p>1) 기초이론반 (무료)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 기초 배우실분</p> <p>2)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p> <p>3) 경매 ▶ 매주개강 (오전반,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 진행</p> <p>※공통 사무실 쓰실분 1. 사무직 정직원 내근하실분 2. 자유 출퇴근 하실분 3. 공동사무실 쓰실분 경매 입찰부터 매매까지 경매컨설팅</p> <p>010-6670-9800</p> <p>010-6670-9800      010-7384-7800</p>
--	---	--